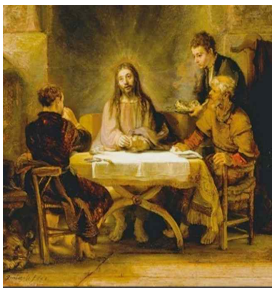


렘브란트作
엠마우스에서의 만찬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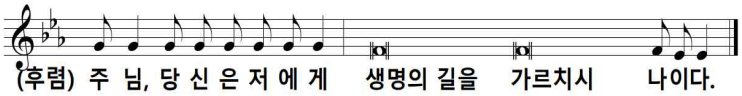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2,14.22ㄴ-33

화답송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2독서 | 1베드로 1,17-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 루카 24,13-35

성가 입당성가 135 예물준비 510
영 성 체 171 파견성가 13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필녕 마리안나 김춘원 베드로 손요셉 이크리스티나 정마가렛 전마지 송데레사 제임스엠런트 김학순	이영근 마이클 린다 김 김영빈 루시아 김영빈 루시아 육릿다, 김경련 도미니카

생미사	봉헌
정영심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박중호 영육건강 현 에피파니아수녀, 조 스테파노신부	정다경 마리아 도미니카 육릿다, 김경련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사목회의

오늘(4/23) 11시, 사목회의실

▶세례성사(4/30) 준비모임(예비신자, 대부모)

오늘(4/23) 11시, 3A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청년분과 야유회 & 바비큐

청년회, 학부모회, 성가정회등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시:4/29(토)오전11시-오후4시,
장소: Roosevelt Island Park
참가비: RSVP $30, 당일 $35,
문의: 청년부분과장 김레이몬드 Tel: 408-206-8011
카톡: raymondbk 자세한 내용은 큐알 코드 신청서 참고해주세요

▶나눔의 바자회 물품 기부

새옷 또는 새 물품으로 부탁드립니다. 5/20일까지 수녀님 사무실로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Tel:714-328-0386 카톡: Jcy258

▶2023 주보광고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후 다미안홀의 재무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비: $200

▶바자회 후원금 기부

강호영 안드레아

미동북부 청년성서모임 제30차 탈출기 연수

탈출기 끝낸 청년 5/19-5/21 뉴튼수도원
비용: 290불 문의: 714-388-4801

▶고해성사 부활시기, 4월 한달동안 고해성사 없습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1학기) 일정

구약	매주일 1시	다미아노홀	김효주 수녀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강 론

성찬례 –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 복음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도록 도와주셨듯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루카 24,29)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고 우리가 묵는 곳이면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부활의 의미이다. 그리고 루카에게 성찬례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 24,30-31 참조) 이제부터 제자들에게는 매일 빵을 떼어 나누는 곳이 그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곳이다.

빵을 나눌 때마다 즉, 성찬례 때마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당신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늘 기뻐했다. 초대 교회 교우들은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 저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했다."**(사도 2,46-47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성찬례를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숱한 식사의 연속이라 보았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다시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해석하신다.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였다. 특별히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을 알아뵈었다. 두 제자는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체 성사(미사 전례)의 두 가지 핵심적 요소 즉, 말씀과 성체를 체험하였다.

예수님은 주일 전례 때 우리에게 성경의 참의미를 설명해주신다. 공동체의 지도자(사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대신한다. 주일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 사랑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의 성사에서, 특별히 미사 성제 중에 거행하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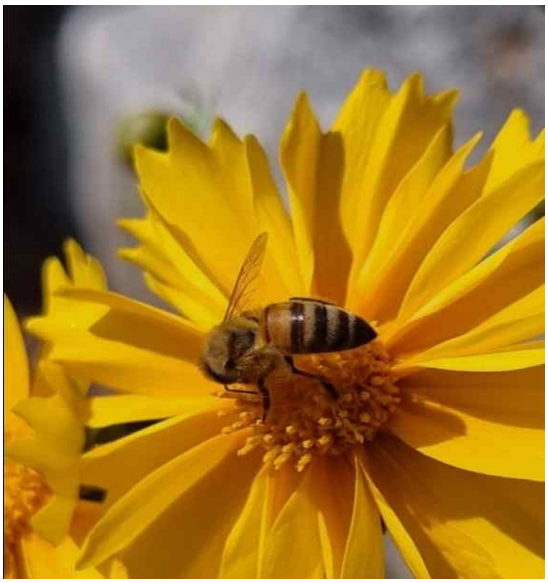
신 요 안
세례자 요한 신부
용호성당 주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4월 23일	김유화 데레사	김규헌 프란치스코	김미혜 이레나	김미혜 이레나	김영숙 카타리나	이유채 아멜리아 한서희 데레사
4월 30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영혜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최예준 사도요한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작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것 중에 으뜸이다." 집회 11,3

성경의 집회서는 말합니다.
꿀벌은 날짐승 가운데 가장 작지만
단것 중에 으뜸인 꿀을 만들 듯이
화려하고 커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꿀벌은 작지만, 생명의 매개체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신앙인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이를 떠올려보십시오.
그 또한 결코 작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